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사항 지켜야



오늘의 禪語 (15) 무자화두 참구법(上)

무자화두를 참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무자화두 참구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자화두 십종병(無字話頭十種病,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열 가지 사항)> <무자화두 십종간병(無字話頭十種揀病,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구별하는 열 가지 방법)> <무자화두 간병론> 또는 <구자무불성과 간병론(狗子無佛性話頭論,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하는 화두를 참구

참구법'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무자화두 참구법' 열 가지는 대부분 대해 스님이 살았던 시대 즉 서기 11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있었던 중국 선원(禪선자)의 고집적인 병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천 년 전에 있었던 문제점을 -물론 이것은 엄격하게는 대해 스님과 간화선의 입장에서 본 문제점임-, 그것도 구어체로 된 한어(漢語)를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그 뜻 분명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불과 2000년 전 우리의 언어도 오늘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판에 천 년 전 중국인이 썼던 말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무자화두 참구법' 열 가지는 대부분 상징적으로 "~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므로 더 이상 보충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행히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의 제자인 진

자화두를 타파할 수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질없이 유무의 견해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망상의 일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② 유무를 초월한 '참된 무(眞無의 無)'라고 헤아려서도 안된다(不得作眞無之無卜度). '무자'에 대하여 '있다(有)' '없다(無)'는 식으로 헤아리지 말라고 한다. 이 '무'는 유와 무를 초월한 참된 무(無), 절대적인 무(無), 또는 유무의 상대성을 초월한 '진무(眞無)의 무(無)'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진무의 무(無)'라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③ 심오한 이치가 들어 있는 '무(無)'라고 생각하지도 말라(不得作道理論). 무에 대하여 유나 무, 또는 '진무(眞無)의 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한다면, 분명이 무자화두 속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현묘(玄妙)한 도리, 또는 심오한 이치가 들어 있는 '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무자화두 속에 심오한 도리가 들어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④ 의식(알음알이)으로 분별하지도 말라(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앞의 설명과 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무얼까' '무얼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게 됩니다. 갖가지로 머리를 굴려서 분별하고 의식으로 헤아립니다. 알음알이를 총 동원하여 "이걸까?" "저걸까?" 하고 분석하게 되는데 그 역시 올바른 참구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심에 지나지 않으므로 혼자 제멋대로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천년 전 대해 스님이 개발 몽산·지눌 선승 등에 의해 계승 부연설명 없이 10가지 금기사항만 기록 정확한 해석 불가

할 때의 주의사항)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통칭하여 '무자화두 참구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자화두 참구법은 화두를 개발한 대해 스님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원나라 때 선승 몽산(蒙山) 화상과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 그리고 그의 제자 진각국사 해심 등 여러 선승들이 계승했고, 박산무이 선사의 <참선경어>에는 열 가지 외에도 화두를 참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50여 가지 이상이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화두참구방법은 모두 다 이 '무자화두 참구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물론 이 무자화두 참구법은 무자화두 뿐만 아니라 모든 화두에 적용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선원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화두참구법은 잠시 부류해 두고 가장 중요한 원전인 '무자화두

각국사 해심(慧誡, 1178~1234) 스님이 지은 <구자무불성과 간병론(狗子無佛性話頭論)>에는 비교적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 두 곳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능한 근사치에 가깝도록 해석해 보았습니다. ① 무(無)를 '있다' '없다'는 '무'로 헤아리지 말라(不得作有無會·不得作有無之會). 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선사는 "무(無,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체중생은 다 불성을 갖고 있다(悉有佛性)"고 했는데, 조주 선사는 "없다"고 했으므로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 화두를 놓고 개인적 또는 여럿이 모이면 '있다' '없다'는 논의가 무성했습니다. 알음알이 즉 분별심에서 나온 이런 논의방법으로는 무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위 없는 깨달음' 얻은 우바이

15 공실도인(空室道人)

<나호야록(羅湖野錄)>은 송나라 임제종 양기파의 효영종은(曉峯仲溫) 스님이 1155년경 나호에 머물 때 지은 책이다. 출가생활하면서 보고 들었던 말 씀과 행적, 여타 기록들을 소개하고 자신의 견해를 붙인 선어록이자 승보사(僧寶史)이다. 이 책에는 선사와 거사들의 일화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비구니와 우바이 등 출·세간과 성별을 초월한 다양한 도인들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우바이 시절 공실도인(空室道人)이라 불리며 선기(禪機)를 자랑하다 뒷날, 출가하여 가부좌한 채 열반한 유구(惟久) 스님의 구도기를 소개하면 이렇하다. 공실도인은 용도각(龍圖閣) 범순(範詢)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슬기로우며 고요히 참선하는 것을 즐겼다. 예장(豫章) 분령(分寧) 채수로 부임하는 아주버니를 따라 운암사의 사심(死心) 선사를 찾아뵈었는데, 한마디 말 끝에 요체를 깨닫고 계승을 지어 사심 선사를 찬탄하였다. "소양의 사심 선사/ 신명한 근원 매우 깊어/ 귀로는 색을 보고/ 눈으로 소리 듣는다/ 범인은 명철하고 성인은 혼해하며/ 뒤로는 부귀하나 앞으로 가난하여/ 중생에 이익 되고 만물을 제도하니/ 쇠를 녹여 황금을 만드는데/ 단청의 겹모양은 옛 것도, 지금 것도 아니로다." 사심 선사가 그녀에게 물었다. "죽은 마음(死心)은 참이 아닌데 어디에다 찬양하는가. 죽은 마음을 찬양한다면, 죽은 마음이란 형상이 없다. 허공을 찬양한다면, 허공은 자취가 없다. 형상과 자취가 없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만일 말을 할 수 있다면 친히 사심(死心)을 보리라." 공실도인이 응대하였다. "죽은 마음은 참이 아니요, 참은 죽은 마음이 아닙니다. 허공이란 형상이 없고 묘유(妙有)는 형체가 없습니다. 기절했다가 다시 소생하면 친히 사심을 볼 수 있겠지요." 이에 선사는 미소를 지었다.

이 하나를 말해내야 모두가 목욕할 수 있으리라. 옛 신령스런 이는 등을 문지를 즐긴다. 보살은 언제 마음 밝힌 적 있었나. '때를 지어 놓지 않는 곳(無礙地)'을 깨닫고자 하면 온몸에서 흠뻑 땀을 뿜어 하리라. 물은 때를 때를 한꺼번에 없앤다 해도 여기에 이르러 또 한 번 씻어야 하리라." 뒷날 고소산 서축원(西竺院)에서 삭발을 하고 비구니가 되어 유구라는 법명을 받았으며, 송 선화(宣和) 6년(1124) 가부좌한 채 입적하였다. 효영 스님은 그녀를 이렇게 평했다. "공실도인은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부귀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련없이 월상녀(月上女) 유마거사의 딸을 뒤따라 '위 없는 깨달음(無上菩提)'으로 달려나갔다. 또한 비구니로서 철마(鐵馬) 위산 선사와 선문답했던 유헤마 비구니) 스님과 쌍벽을 이루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법적이 비범하였으니, 가을서리 같은 매서운 지조가 없었어 이렇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김성우 객원기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든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전라도 : 010-2311-0157
강원도 : 019-396-1110 경상도 : 011-327-7697
충청도 : 010-8674-23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발, 다리,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귀의 삼보하얏고
무자년 한 해도 발보살님의 기도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랄 합니다.
사부대중의 발로 인한 몸 건강을 생각, 발명 특허를 획득한 지압결정장을 보급합니다.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초극세사·실리콘·동 99% 함유 일체 소재로 발발새 제거, 무중 예방!!
장인정신으로 수작업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만행화 대표 박해운 합장

지압·동 결창

- 초극세사
- 실 리 콘
- 동 99%

가격 15,000원
*사이즈 : 230-280

▶본사·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100미터
▶문의·주문 : 02)733-5715 011-9000-5715
▶계좌 : 우리 178-08-109613 (예금주: 박해운) 합장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북, 모듬북·장고·징·꽹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공단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本佛 조성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기능 3568호 임병배 합장 011-799-4041

석가모니불, 양류관음, 천수천인

산신님, 나한님

성불조각미술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번지 공방

신행게시판

- 한국정신과학회 4월 자유토론 '나는 누구인가' 한국정신과학회 4월 18일 저녁 8시 한국정신과학회 사무국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4월 자유토론을 개최한다.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수행체함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지문, 초상형상을 비롯한 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는 자리이다. 한국정신과학회 이매주 회장,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이 자유토론에 참여해 토론한다. (02)654-5701
- 한국불교대학대관행사 53선지식법회-한국불교대학대관행사가 4월 29일 오전 11시 옥불보전 대법당에서 53선지식 대법회를 개최한다. 법사는 불지탈란트 강부자씨다. (053)474-8228
- 조계사 보문사 봉정암 성자순례-서울 조계사가 4월 28일 강화 보문사, 4월 30일~5월 1일 봉정암으로 성자순례를 떠난다. 강화 보문사 동참금은 3만 원, 봉정암 동참금은 5만 5000원이다. (02)732-2187
- 아빠따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빠따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평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빠따 마스터 김해라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 호두마을 주말 수행-천안 호두마을 우뻘사나 명상센터가 4~6월 수행일정을 공개했다. 4월 18~20일, 25~27일, 5월 3~5일 등해 스님의 지도로 초보자 주말수행이 마련된다. 5월 9~14일, 20~29일, 31~6월 14일 김철권 박사, 배디다 비할사 사외도의 지도로 집중수행이 진행된다. (041)567-2841
- 홍원사 우뻘사나 명상수행-서울 홍원사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우뻘사나 명상수행을 진행한다. 우뻘사나 수행의 의미를 짚어보고 마음챙김달